

# “문화누리카드로 풍성한 문화 누리요”

전북문화관광재단, 누락 대상자 발급 지원 · 사용 저조 이용자 사용 안내 · 찾아가는 문화장터 운영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신청과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지난 31일 재단에 따르면 문화누리카드 누락 대상자의 발급을 지원하고 사용이 저조한 이용자에게는 카카오톡 채널이나 SNS를 통해, 사용자 및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온라인 가맹점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장터’를 운영했다.



문화누리카드 스티커

특히 9월과 10월 실시된 ‘찾아가는 문화장터’ 이용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참여한 카드 수혜자 중 90% 이상이 장터 참여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수공예 품목과 캠핑용품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이와 같은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11월에 찾아가는 문화장터를 계속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지역축제 현장에서 한시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10월에 개최된 ‘익산 천만 송이 국화축제’, ‘고창 모양성제’, ‘순창 장류 축제’ 등에서 문화누리카드 이용을 지원했으며, 오는 11월 18~19일 개최 예정인 ‘진안 김치 보살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축제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1월 둘째 주부터 도내 문화누리카드 이용률이 저조한 장수군 거점 5개소에 ‘문화 박스’를 상시 설치해 다양한 상품을 직접 보고 전화 수기로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부 활동이 힘든 이용자를 고려

해 전북 문화누리 안내책자 카탈로그를 보면서 원하는 상품을 전화로 주문해 상품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결제도 지원한다. 전북 문화누리 안내책자 카탈로그는 전북지역 주민센터 및 전북 문화누리 네이버 블로그의 게시물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끝으로 재단이 운영하는 ‘전북 문화누리’ 블로그(blog.naver.com/jct0419)나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또는 인스타그램(@j\_b\_munhwa\_nuri)을 통해 사용처를 살펴볼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문화누리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아직까지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지 못한 대상자들은 풍성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11월 30일까지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와 교육문화팀(063-230-7451~5)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UAE 코리아 페스티벌서 남원 알려

남원시립국악단 · 농악단 · 복합문화체험단, 개막식 공연 참석

남원시 관계자는 선선하고 아늑한 가을의 북풍에서 남원시립국악단, 농악단, 복합문화체험단이 UAE(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되는 2023 UAE Korea Festival 개막식 공연에 참석해 아부다비에 남원을 알렸다고 전했다.



이 행사는 아부다비의 한국대사관이 주최, 한국문화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11회를 맞이했으며, 지난 10월 27일~29일(3일간)까지 아부다비 Umm Al Emarat Park와 한국문화원에서 동시 개최됐다.

남원시 외에도 국립국악원, 충북문화재단, 아쿠부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AT 등 7개 단체가 70여명이 참석해 현재 중동 지역에서 관심이 높은 한류, 한식 등을 타깃으로 한국을 홍보하였다.

남원시는 10월 27일 개막식에서 한국의 ‘멋’과 ‘신명’이라는 주제로 시립국악단과 농악단이 역동적이고 화려한 무대공연을

펼쳤으며, 복합문화체험단은 10월 27일과 10월 28일 2일간 한복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문화재청이 제작한(남원시 공동참여) K-명승 관광투어 홍보영상을 배경으로 한 전시관을 운영해 남원시 홍보에 전력을 다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2023 Korea Festival 참석으로 중동의 문화중심지 UAE(아랍에미리트)에서 남원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의 우호 교류를 위한 문화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무주최북미술관, ‘우드버닝으로 우리 동네 그리기’ 작품전시회

‘우드버닝으로 우리 동네 그리기’ 작품전시회가 오는 11월 5일까지 무주최북미술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무주군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 참여 교육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자리로 나무판 위에 우드버닝기(목공예용 인두기)를 이용해 무주의 자연과 건축물, 골목 등의 풍경을 기록한 작품 31점이 전시된다.

교육생들은 “그간 무주를 담은 그림이나 사진 전시회는 많았는데 우드버닝 작품전은 처음이라 굉장히 뿌듯하다”며 “무엇보다도 덕유

산 설전봉과 상재부 습터 등과 같은 무주 대표 명소들을 친자연적인 작품으로 남기는 데 동참하게 돼 영광”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31일 최북미술관 로비에서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김혜천 무주군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비롯한 주민협의체, 그리고 교육생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이 열려 의미를 더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작품 면면이 우리 군민들 손으로 완성 시킨 우리 지역 명소”라며 “생소하지만 자연특별시 무주와 겹맞은 재료와



표현기법으로 탄생된 작품이라 더욱 값지고 고공스럽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은 지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도시재생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사업으로 무주군에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을 했다. /무주=전문성 기자

/장은성 기자

## 팔복예술공장서 4일 연극 펼쳐진다

전주문화재단, 자체 개발 ‘엄마의 카세트 테이프 - 나의 작은 햇살’ 공연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오는 4일 자체 개발한 연극 공연 ‘엄마의 카세트 테이프 - 나의 작은 햇살’을 시민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 작품은 2021년부터 3년 여에 걸쳐 진행됐다. 2021년 문화예술교육의 방식으로 이야기 자원을 수집하고, 2022년 시범 공연을 했으며, 올해 10월 문화예술 분야 관계자 초청 쇼케이스를 추진한 바 있다. 시민 대상으로 무료 공연을 앞두고 있는 이 작품은 초기 단계에서 팔복예술공장의 ‘대표콘텐츠’로 기획됐지만, 현재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권역을 전주시 일원으로 확장한 전주시의 정책방향성과 발맞춰 팔복예술공장에서 이뤄진다.

특히 이번 공연은 과거 카세트 테이프를 제조하는 공장인 팔복예술공장 내·외부 공간을 무대로 관객과 배우가 함께 이동하면서 공연을 만들어가는 몰입형 연극이다. 연극을 관람하는 과정에서 관객들은 1980년대 여공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어서 오라는 동료들의 손짓에 따라 함께 이동하기도 한다. 극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팔복예술공장 곳곳을 누비며 돌아보면서, 군데군데 남아있는 과거의 흔적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이 공연을 즐기는 관객 포인트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과거 문화예술을 상징하던 카세트 테이프 공장은 사라졌지만, 지금 그 토대 위에 세워진 팔복예술공장에서 오늘의 문화예술을 꽃피우고 있다”며 “팔복예술공



의 과거와 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이 작품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작품은 11월 4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무료 공연으로 시민에 공개된다. 공연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팔복예술공장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재단 예술놀이팀(063-283-92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남원노인복지관 청춘드림앙상블 특별한 음악회 2일 열린다

남원시노인복지관(관장 장진석)에서는 오는 2일 오전 10시,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남원시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몇 년간 꾸준한 연습과 노력을 통해 성장한 남원시노인복지관 ‘청춘드림앙상블’과 광주 ‘아시아실버윈드오케스트라’의 합동공연으로 진행된다.

청춘드림앙상블의 연주곡은 괴이강의 다리, 우리의 소원은 통일, 소양강 처녀, 배사메 무초와 세컨왈츠이고, 아시아실버윈드오케스트라의 연주곡은 인스탄트 콘서트, 아이 윌 팔로우 힘(I will follow him), 그리운 금강산(독창), 밤하늘의 트럼펫, 잊혀진 계절, 김광석 메들리



이다. 복지관 앙상블만은 색소폰, 통기타, 하모니카, 리코더, 아코디언, 타악, 클라리넷, 드럼, 피아노로 구성된 앙상블 봉사단으로 지역사회 각종 행사, 사회복지 기관에서 공연 봉사를 펼치고 있으며, 오케스트라는 2011년에 창단된 광주 지역 유일의 실버 오케스트라로, 60세 이상의 악기 비전공자들로 이루어진 단체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한기호 작가 첫 개인전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13일까지 전북예술회관 3층 산마루 전시실에서 한기호 작가의 첫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한기호 작가는 숲속의 아름다운 야생화와 지저귀는 새들의 육추 과정을 담은 조류 사진작가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한 작가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이른 봄에 꽃을 피우는 야생화, 갓 태어난 새끼 새들을 돌보는 어미 새의 헌신적 사랑을 통해 생명과 사랑의 신비를 느낄 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기호 작가는 “이미지와 한 꽃과 새들의 노래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을 담아 첫 개인전을 기획했다”며 전시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기쯤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